

북스

Books

“선·악 가르지 말고 하나된 삶 살라”

서양이 동양에게 삶을 묻다

웨인 다이어 지음

“하나 된 삶을 살라. 모든 것을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으로 구분 짓는 그릇된 성향을 버리고 조화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아라 아름답거나 못생겼다는 판단은 물질세계의 기준일뿐이다.”(35쪽)

동양의 사상에 바탕을 둔 위의 문장은 당연히 동양인이 썼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문장은 순전히 서양인이 쓴 것이다. 동양 사상이 짙게 밴 이 문장을 쓴 인물은 다름 아닌 베스트셀러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저자, 미국의 웨인 다이어이다.

책 ‘서양이 동양에게 삶을 묻다’는 서양인인 저자가 동양의 고전 ‘도덕경’을 그들의 시각에서 현대에 맞게 풀어서 일종의 해석서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이라 할 수 있겠다.

‘도덕경(道德經)’이 어떤 책인가. 2천500년 전에 쓰인 이 책은 이미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될 만큼 끊임없이 새롭게 출간되고 있다. ‘도덕경’은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서양사 삶의 방식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등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경전이다.

깊은 명상과 탐구를 통해 수도자적 자세로 책을 집필했다는 저자는 현대인들에게 ‘도덕경’을 현실적인 인성검사와 변화 가능성을 안겨주는 길잡이로 삼아 아한다고 권하고 있다.

저자는 도(道)와 무위의 삶을 열심히 탐구하고 이



김충도의 ‘노자출관도(老子出關圖)’. 노자가 외뿔소를 타고 함곡관을 나서는 모습.

해해야하며 “지금, 도를 행하라”고 주문한다.

저자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

는, 비난과 좌절에 직면했을 때 잠시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신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람들과 만물의 내면 깊은 곳에 숨은 덕을 믿고 그 덕의 힘 안에서 보호받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모든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소개하기도 한다.

저자는 “도덕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가운데 하나는 우리 정신을 확장해 준다는 점이라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노자는 겸허함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라고 말하며, 행함(爲)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행하지 않음(無爲)을 권한다”고 지적한다.

총 81장의 원문에 대한 해석과 함께 각각의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에세이 형식의 책은 자연 그대로 하나된 삶, 영원한 깨달음을 전하면서 상대적 결핍감이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희망과 위안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책 중간중간 저자의 동의를 얻어 자기경영 전문가가 구본형 씨가 쓴 ‘구본형의 노자 읽기’를 덧붙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작가의 관점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읽힌다.

‘도덕경’을 ‘노자의 무위경영’으로 풀어낸 10편의 글 역시 현대사회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풀기위한 위대한 인류의 지혜로 다가선다.

〈나무생각·2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도덕경(道德經)은 중국 도가철학의 시조인 노자(老子)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저서로, ‘노자’ 또는 ‘노자도덕경’이라고도 한다. 약 5천자, 81장으로 되어 있으며, 상권 37장의 내용을 ‘도경(道經), 하권 44장의 내용을 덕경(德經)이라고 한다.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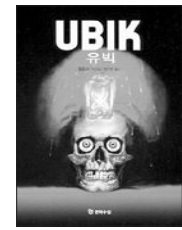
▲트러블=‘수요일의 전쟁’으로 뉴베리상을 수상한 게리 D. 슈미트의 최근작이다. 소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말라가 섬사람들을 짓밟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뤘다. 백인과 인디언의 역사와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노예로 팔려간 인디언의 슬픈 역사와 전쟁(캄보디아 내전)으로 눈앞에서 누락을 잃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도착한 남의 나라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보트피플에 대해 이야기한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프랑스 근대문학 : 볼테르, 위고, 빅자크=세계의 모든 문학을 한자어에서 만날 수 있는 ‘문학의 광장’ 시리즈의 다섯번째권.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문학의 근대화를 이끈 프랑스 소설들을 소개한다. ‘인간희곡’, ‘레미제라블’, ‘카르멘’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프랑스 대표작가의 작품과 ‘보르나’, ‘운명’ 등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작품들을 조망했다.

〈웅진지식하우스·3만원〉



▲유빅=SF문학의 거장인 필립 K. 딕이 1969년에 발표한 소설로 당시 1992년을 배경으로 했다. 화상전환, 유비쿼터스 개념 등 지금은 현실화됐지만 당시에는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개념들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을 비롯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물질’인 ‘유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스펙타클한 모험의 세계를 담았다.

〈문학수첩·1만2천원〉



▲방송과 나=한국 방송 역사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최창봉(85) 한국방송인협회 이사장의 자서전이다. ‘1호 방송인’으로 살아온 35년 방송인생이 오롯이 담겼다. 초창기 열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환경부터 동아방송 국장대리, KBS 부사장, MBC사장을 거친 그의 방송인생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보는 듯하다.

〈동일일보사·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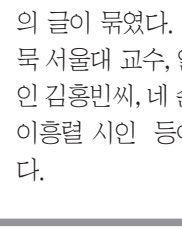
▲워낭=소설가 이순원씨(52)의 신작 장편소설. 지금은 식탁에 오르는 고깃감 정도로 현대적이지만 예전에는 애지중지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대접받던 소를 주인공으로 했다. 강원도 시골 우루리 차무집 외양간 소 12대와 차무집 사람 4대가 1884년 갑신정변부터 2008년까지 120년 동안 살뜰하게 나누어 왔던 정을 그렸다.

〈실천문학사·1만천원〉



▲책 읽는 CEO=바닥에서 시작해 정상에 오른 ‘책 읽는 CEO’ 13인의 인터뷰를 담았다. LS전선 구자열 회장, 한세에스24홀딩스 김동영 회장, 교보문고 김성룡 사장, 파파존스코리아 김현진 사장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더들의 인생과 경영, 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우리 시대 리더 13인, 그들을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이끈 ‘독서’라는 특별한 성공의 지혜를 읽을 수 있다.

〈비즈니스북스·1만3천원〉



▲나는 멋지고 아름답다=장애를 딛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24명의 글이 묶였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는 해양과학자 이상목 서울대 교수, 열 손가락 없이도 7마족 최고봉을 모두 정복한 산악인 김홍빈씨,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씨, 발가락으로 시를 쓰는 이흥렬 시인 등이 장애 속에서 꿈을 이룬 저마다 사연들을 들려준다.

〈부키·1만천원〉

사라마구 ‘예수복음’ 새롭게 번역 재출간

199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1991년 발표작 ‘예수복음’이 번역돼 출간됐다. ‘예수의 제2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번역됐다가 절판된 것을 새롭게 번역 다시 출간한 것이다.



“사라마구의 작품 중 가장 까칠하고 위험하다”는 평을 듣는 소설로 예수의 출생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를 작가 특유의 위트 넘치는 문장으로 재구성했다.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동정을 잃고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을 통제하도록 이용당한 것으로 묘사된 부분 등은 출간 당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원제는 O Evangelho segundo Jesus Cristo. 〈해냄·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귀가 서럽다 이대를 지음

장흥 출신 이대홍(42) 시인의 네 번째 시집 ‘귀가 서럽다’는 구수함에 대한 기억을 통해 산다는 것의 서러움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몸부림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오래된 것들은 지나온 세월만큼 얼굴이 검습니다. 하얗은 것도 쉬이 흘러지 못하고 받아들인 덕분입니다. 고목나무 뿌리가 저렇게 검은 것도 돌이 되어 가라앉는 누군가의 속 울음에 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시간의 뿌리’ 중)

1994년 등단 이후 사회적·역사적 비판의식에서 서정성으로 점차 시적 무게중심을 옮겨온 이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지나온 세월만큼 ‘딱딱’이 된 것들,

과거 추억·고향의 정서 대변하는 어머니·가족...

이번 시집 역시 많은 작품이 어머니를 통해 세상을 읽고 있다는 것은 전과 다름없다. 과거의 추억과 고향의 정서를 대변하는 어머니는 시집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을 품은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풀·나무들을 상상하게 살려내는 힘을 가진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시인은 후기에 있어 “엄마라는 말과 맘마라는 말은 어린이가 같을 것이다. 산모인 사람은 기차를 타고 온다, ‘이름만 이베면 뭐한다요’, 장편소설 ‘청명’ 등을 썼다.

현대시 동인상, 애지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시할’동인으로 활동중이다. 〈장비·7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han Real Estate,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angwul Real Estate, highlight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nwon Real Estate, showcasing a large building complex with multiple floors and ameni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providing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ir services, including property listings and financial advice.